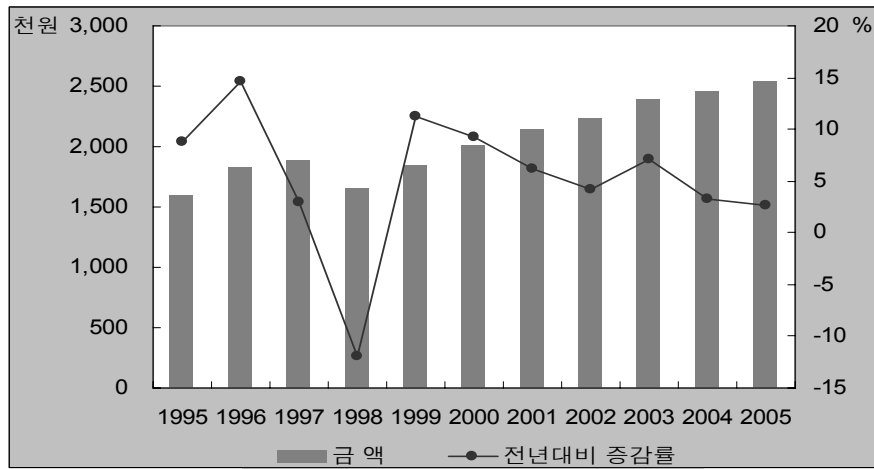


1. 서울시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 변화(1995~2005년)

서울시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5.3% 증가하여 2005년에는 253만 3,100원이었음. 이는 1995년 대비 58.8%, 2000년 대비 25.7% 증가한 것임. 1998년에는 IMF 외환위기로 연증가율이 -12.0%로 최저치를 보임.



자료: 서울특별시, 「서울통계연보」, 각년도.

[그림 1] 서울시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 추이(1995~2005년)

2. 가계지출 항목별 변화

1995년 대비 2005년 가계지출 증가율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소비지출에서는 교통·통신이 130.0%, 광열·수도가 101.1%, 교육이 82.0%, 보건·의료가 56.7% 상승하였음.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인 것은 피복 및 신발로 11.3%였음. 조세, 공적연금 등 비소비지출은 1995년 대비 100.9% 증가하여 소비지출 증가율(53.5%)을 큰 폭으로 상회함. 2000년 대비 2005년 가계지출 증가율을 보면, 소비지출에서는 교통·통신(38.9%), 보건·의료(36.8%), 교육(34.8%) 순으로 상승하였고, 비소비지출 증가율은 41.8%로 가계지출에서 가장 높아 10년 전과 5년 전 가계지출의 패턴이 다를 수 있음(<표 1> 참조).

<표 1> 서울시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 항목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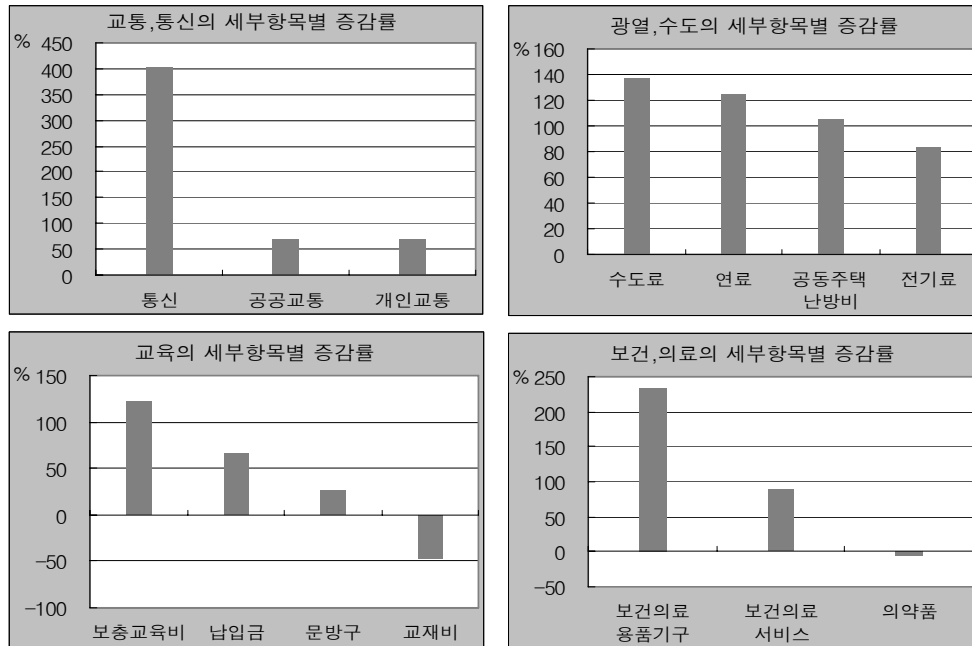
(단위: 천원, %)

분류	가계지출			2005년 증감률	
	1995년	2000년	2005년	1995년 대비	2000년 대비
총금액	1,594.8	2,014.5	2,533.1	58.8	25.7
소비지출	1,413.2	1,757.8	2,168.6	53.5	23.4
식료품	416.6	488.8	561.3	34.7	14.8
주거	48.6	63.1	75.8	56.0	20.1
광열,수도	54.6	91.1	109.8	101.1	20.5
가구집기 가사용품	63.7	67.2	84.5	32.7	25.7
피복 및 신발	102.9	95.1	114.5	11.3	20.4
보건 의료	68.1	78.0	106.7	56.7	36.8
교육	152.5	205.9	277.5	82.0	34.8
교양오락	78.2	89.9	117.1	49.7	30.3
교통통신	156.3	258.8	359.5	130.0	38.9
기타 소비지출	271.7	320.0	361.9	33.2	13.1
비소비지출	181.5	256.7	364.6	100.9	41.8

자료: 서울특별시, 「서울통계연보」, 각년도.

3. 가계지출 세부항목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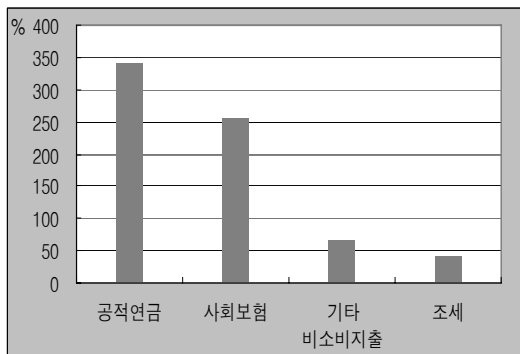
2005년도 가계지출에서 1995년 대비 높은 증가율을 나타낸 항목을 중심으로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소비지출에서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인 교통·통신에서는 통신지출(404.2%)이 급증하였고, 다음으로 높은 증가를 보인 광열·수도에서는 수도료, 연료, 공동주택 난방비 모두 100%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음. 교육에서는 보충교육비(122.6%)가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사교육에 대한 지출 비용이 늘어났음을 알 수 있음. 보건·의료에서는 보건의료 용품기구(234.4%)가 높은 증가율을 보였음((그림 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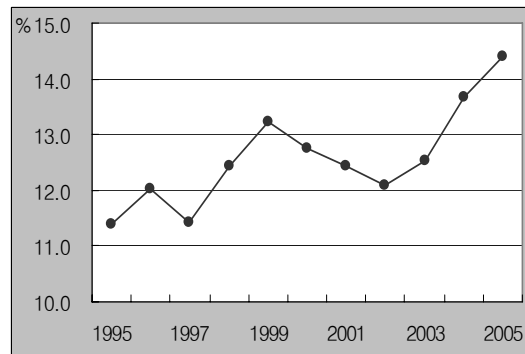
자료: 서울특별시, 「서울통계연보」, 각년도.

[그림 2] 2005년도 가계지출 중 소비지출 세부항목별 증감률(1995년 대비)

비소비지출에서는 공적연금(340.4%), 사회보험(255.5%) 등의 세부항목이 크게 증가하여 가계에 부담을 주고 있음. 이로 인해 지난 10년 동안 가계소비에 대한 비소비지출의 비율 역시 1995년 11.4%에서 2005년 14.4%로 증가하였음. 이러한 비소비지출의 빠른 증가세는 실질 소비에 반영되는 소비지출의 둔화를 가져와 경기 회복에 지장을 주고 있음.



[그림 3] 비소비지출 세부항목별 증감률(1995년 대비)



[그림 4] 가계지출 대비 비소비지출의 비율 변화